

# 산업동물을 위한 통합 병원의 일원이 되고 나서

김희원

서울우유 파주진료소  
부설파주연천축협동물병원  
cowdoc@hanmail.net



산업동물 그중에서도 젖소를 취급하는 수의사에게는 4위 전위증은 가장 진단이 쉽고 정확하며 외과수술로 빠르게 회복시켜 수의사의 존재가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수입을 보장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질병중의 하나다. 근데 이 4위전위는 일부 증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수도 있다. 오늘 아침에 4위전위증이라고 진단을 내리지만 잠시 급한 환축을 진료하고 온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 가 버린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4위전위가 아닌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 오래 전 정상인 시간에 내가 진료를 하고, 그 다음 날 그 소가 안 먹어서 다른 수의사가 진료를 했을 때 “4위 전위야! 수술해야 돼. 누가 진료했어? 나~ 윌 수의사라고 4위도 진단을 못해.” 이렇게 남을 깎아 내린 수의사도 있었다.

요즘을 숨넘어가는 축주들의 전화는 많이 줄었다. “원장님! 빨리요. 송아지 발이 나왔어요. 가스가 찼어요. 못 일어나요.” 등등 며칠씩 진료를 미루다가도 동물병원에 전화하는 그 순간부터 급해지는 축주들.

요즘을 대개 개인적인 식사약속이나 축주의 병원치료, 모임들이 있으니 시간 맞춰달라는 주문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모처럼의 가족 외식이나 모임 참석 전에 울리는 휴대폰의 벨소리에 가슴이 떨컱한다.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넥타이를 매고 있는 전화도 가슴이 철렁한다.

딸아이 유치원 재롱잔치도 중간에 나와야 했고 중학교 졸업식도 중간에 나와야 했다. 배가 부른 아내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한 추석 날, 하루 종일 절태술로 보낸 적도 있었고.....

서울우유 파주진료소 김영찬원장의 지휘아래 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8명(인턴제외), 2명이 야간 당직을 서고,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근무하거나 쉰다. 그리고 1년에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일 년에 약 270일 정도 근무한다.

덕분에 감히 외국여행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필드에서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집사람의 혼수대로 그린을 읽고 퍼팅을 한다.

내가 쉬는 날 선배 후배 수의사에게 전화해서 꼭 4위전위증 같은데 소리가 나지 않으니 다시 한 번 세밀히 봐달라고 부탁한다.

내가 쉬는 날 선배 후배 수의사에게 전화해서 꼭 4위전위증 같은데 소리가 나지 않으니 다시 한 번 세밀히 봐달라고 부탁한다.

또 어제 어떤 식으로 진료했는데 오늘 상태가 어떤지 봐달라고 전화를 받는다. 진료시 힘든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제왕절개를 하거나 장폐색수술을 하기도 한다. 둘이 하면 얼마나 쉬운지.....

환축에 대해서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의견을 나눈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니, 선배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후배의 신지식이 덧붙여져 실력이 향상됨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다 응급진료 전화를 받고서, 대리운전을 해서 목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사람에게 택시타고 와서 진료차를 타고 귀가하지 않아도 된다.

파주시의 가축질병진단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파주연천축협이 옆방에 있다. 그 진단실에서 내 책상에 올려놓은 목장의 유방염 검사내역- 세균은 황색포도상균이고 잘 듣는 약제는 무엇이고 어떤 약제는 내성을 가지고 있으니 건유기 치료가 답이다- 이런 차트가 있으니 목장의 유질관리 컨설팅은 땅 잡고 헤엄치기.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농가에서 새로 구입한 소에서 빈혈증상이 있다. 진단실에서 혈액검사를 하여 Theileria가 선명한 혈액사진을 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소견서 뒤에 첨부하니 일

처리는 일사천리다.

그리고 단골목장에서 번식간격이 늘어나고 낭종이 증가한다는 수치가 나오자 전문원장님께 부탁하여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점검하니 금세 정상으로 돌아오니 축주의 신뢰는 쌓인다.

그럼 가장 중요한 수의사의 수입은?

내가 쉬는 날 다른 원장님이 내 일을 해주고 내가 근무하는 날 다른 원장님의 응급진료를 맡으니 전체적으로 일하는 총량은 같다.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정기진료 목장 수는 많아야 40개 정도다. 한 달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살펴야 하니 일이 없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그래서 혼자 죽어라 할 때나 지금이나 수입은 차이가 없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바로 외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진료비가 유대에서 공제되어 통장으로 입금되니 세무서에서 수입을 모두 알고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 통합이전 진료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어 이렇게 살아야 하나—이제 곧 그만두어야지 생각하다가, 새로 산 이차가 망가질 때 까지만 일하고 그만 뒤야지 하다가, 아들 결혼하면 그만 뒤야지 하다가, 거점통합병원의 일원으로 일하면서부터는 체력이 닿는 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책도 들여다본다.

이와 반대로 축주의 입장에서 나온 말들을 살펴보면

파평면 L씨, “아니 가축병원이 합친다고, 독점한다고 진료비 왕창 올리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원장님, 그 것 받고 남아요?” “유대는 올랐는데 진료비는 안 올러요?”

파평면 J여사, “원장님! 나 그만 둘 때까지는 해야 되요. 요즘은 대동물 수의사는 힘들고 더럽고 휴일 없고 야간에 자다가 끌려나온다고 젊은 사람들은 안한다면서요?”

이러다가 “젊은 원장님 계셔서 좋으네요. 앞으로 수의사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호호호!”

법원읍 P씨, “원장님! 오늘 쉬시는 날이세요? 아뇨 급한 건 아니구요 월요일 날 봐주세요.”

이러다가 “네, 원장님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른 원장님 보내주세요.”

법원읍 C여사, “원장님, 아휴 어제 밤에 처녀소가 새끼를 못 낳아서 고생 실컷 했어요. 잘 못 일어나는데 무슨 주사를

놔야 되죠?”

“아니 왜 전화하지 그랬어요?”

“밤이라서 전화하기가 미안해서 그렇죠.”

“아니오, 밤에 야간 당직이 2명이나 있는데 전화안하면 어떡해요?”

“그래요~ 이제 밤에 전화해도 되겠네.”

낙우회에서 병원의 열렬한 지지자인 J씨, “야 넌 왜 정기진료 안하나? 수의사한테 돈 준거만큼은 더 뽑아~ 수정해놓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 임신감정해보고 안 들었으면 빨리빨리 치료해야지. 백신도 놔 달라고 그러고,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좋고, 수술비도 00만원밖에 안 받아. 일 년에 그거만 해도 본전 다 뽑겠다야.....”

사족하나,

대동물병원의 수의사들 모두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협업에 미숙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로 병원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고 근무시간이 줄고 실력도 향상되고 수입도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하니 수입도 좀 더 가져가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빗자루는 내가 먼저 든다는 생각을 가지면—내가 한 번 더 나가면 다른 수의사가 좀 더 편하겠거니 하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로 다니는 목장이 다른 수의사 담당목장보다 뒤쳐지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지 란 생각을 한다면 동물병원의 유포피이는 열릴지 모른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 동물병원의 연합체에서 진일보하여 사람들의 대학병원 즉 2차병원의 역할로 외국 책에서나 보던 진료, 예방, 교육의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